

# 광주 전통시장 청년상인들 전국에 시장 개척

송정역시장 ‘또와식빵’ 서울·대구·광주 충장로 등 점포 7곳  
청년상인 이색상품 입소문...젊은층 방문객 늘어 시장 ‘활기’

광주 1913송정역시장에서 빵을 팔던 한 젊은이가 1년도 되지 않아 가맹점과 직영점 등 7곳의 점포를 오픈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등장에 종소상인들이 앞다투어 문을 닫는 것과는 달리 남다른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전통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7일 광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시장에서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또와식빵(사장 유양우)이 광주의 전통적인 쇼핑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충장로점 오픈

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 시작된 지역 프랜차이즈가 도심 상권에 진출하고 체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앞서 또와식빵은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에 2호점을 냈고, 대구 반월당역 지하상가에도 3호점을 오픈했다. 또 가맹 사업을 시작해 오픈을 앞둔 충장로점을 비로생 부산 남포동점, 목포 하당점, 광주 전남대점 등도 문을 열거나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유양우 사장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맛과 산 가격으로 승부를 했고, 인근 상인들과의 협업도 중요했다”면서 “또와식빵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

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많은 청년상인들이 ‘제2의 또와식빵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남광주 받기자 야시장에 참여할 이동매대·푸드트럭 30여팀의 청년 상인이 활동하고 있고, 1913 송정역 시장은 청년 상인들의 참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불황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최근 청년들의 전통시장 내 창업 성공담은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1913 송정역 시장은 지난해 4월 1913 송정역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한 뒤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명에서 3000여명가량으로 늘었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배로 늘어난다.

남구 무등시장에도 지난해 4월 평균이 27세의 청년상인 10여명이 새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

청년상인들의 도전은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청년들이 파는 이색 상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고 덩달아 기존 상인들의 매출도 늘고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주소비층이 중장년이었는데 청년상인들이 오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면서 “젊음과 도전을 앞세운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고, 이들의 성공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성공신화를 써내고 있는 점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삼성 무풍 ‘1 Way 카세트’ 공개

삼성전자 모델들이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7)에서 ‘무풍에어컨’의 ‘무풍 냉방’ 기술을 시스템에어컨으로 확대 적용한 ‘무풍 1 Way 카세트’ 등 삼성의 혁신 기술이 담긴 최첨단 공조기기를 소개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 둔화...ABS 발행 27% 급감

〈자산유동화증권〉

주택금융공사 저당증권 발행 20조 감축 치명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작년에는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둔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규모를 20조원 이상 줄인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83조원에 달했던 ABS 발행금액은 지난해 60조7000억원으로 26.8% 감소했다. 거래건수는 171건으로 전년 175건보다 2.3% 줄었다.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소폭 감소했던 2014년을 제외

하고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2010~2015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0.2%에 달할 정도였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주로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유가증권 등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며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대체자금 조달, 부동산금융 증권화, 투자상품 구조화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 급성장세를 보이던 ABS 발행이 줄어든 것은 국내 ABS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급

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기초 MBS 발행을 크게 확대했었는데 작년에는 안심전환대출 유동화를 중단하면서 2015년 56조원에 달했던 MBS 발행 규모를 35조3천억원으로 20조원 이상 줄였다.

이에 따라 전체 ABS 시장에서 MBS 비중은 67.5%에서 58.2%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의 발행이 작년 상반기 종료되면서 발행금액이 전년대비 36.0% 감소한 것도 전체 ABS 발행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2094.05 (+12.69) | ↑ 금리 (국고채 3년) 1.78% (+0.04)  |
| ↑ 코스닥 606.05 (+2.00)   | ↓ 환율 (USD) 1146.10원 (-11.90) |

## 노틸러스호성, 美 ATM 관제센터 열어

32개주 9천대 감시...365일 24시간 민원 관리

노틸러스호성 미국법인은 미국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신규 서비스센터인 ‘SOC (Service Operation Center·서비스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SOC는 본부 차원의 서비스 관제소로, 대형 LCD(액정표시장치) 전광판을 통해 미국 내 32개 주에 설치된 약 9000대의 노틸러스호성 ATM의 작동 현황을 한눈에 감시·관리하게 된다.

SOC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장애 발생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요원을 출동시켜 즉각 이를 해결한다.

노틸러스호성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접수한 뒤 사후에 관리하는 콜센터보다 한발 진보한 서비스”라며 “중양에서 민원고장과 장애 현황을 통제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틸러스호성은 SOC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미국 51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국 내 편의점에도 ATM을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장 점유율 45%로 1위인 미국 ATM 시장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그룹 내 IT(정보기술) 분야 사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진 조현준 호성 회장은 “금융 IT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노틸러스호성은 앞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기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틸러스호성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으며, 2020년까지 전 세계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고부가 차별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지역 中企 17곳 ‘기술혁신’ 인증서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7일 청사 내 공간에서 올해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17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들 기업의 규제·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함께 개최하고 기술역량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도 접수했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자금·기술·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서 1만7807개사가 인증을 취득한 가운데 광주 385개사, 전남 419개사 등 총 804개사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신규로 선정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17개사는 설립된지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 중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냉장고용 PCM 쿨팩을 생산하는 (주)지아이엘텍은 기술사업화 능력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중기공단, 2세 경영인 실무 교육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차세대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2세 경영인 아카데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4월4일 개강하는 이 과정은 창업주 회사에서 기업경영 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위기대응능력, 조직관리, 성과관리 기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은 4월4일부터 6월20일까지 총 15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수강생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3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문의 062-250-30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Hye Eun Lee*  
2017 Dinner Show